

믿음은 구원과 심판을 확신하는 것

창 19:12-17, 24-29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루는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평소에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물으니 당황해서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그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지금까지 윤리니 도덕이니 하는 것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천국과 지옥, 이것만 내 마음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겠고, 세상의 많은 모순들도 능히 극복하겠고, 이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대해 너무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복음에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관한 메시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축복 받는 것, 질병이 치유되는 것, 죄와 마귀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이 복음인 동시에 진정한 복음에는 죄의 무서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 성경이 쓰여 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소돔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소돔성에 보내 그 성의 죄악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가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소돔성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음란과 폭력, 동성연애가 그 성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롯의 집에 거하게 되었는데, 그날 밤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롯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상관하겠다는 말은 성적으로 관계하겠다는 말입니다. 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라고 말합니다. 소돔성의 죄는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아예 집단적이고 총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의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지역, 한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전 우주적인 심판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 ‘정말 그럴까?’ 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시대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무슨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이 세계 역사 한가운데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또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런 심판의 사건들은 마지막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이한나 목사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해결하지도 못한 채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날날이 드러나고, 그리고 지옥의 영영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소돔성의 죄를 본 천사들은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롯에게 말합니다. 13 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시기로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천사들이 소돔성의 멸망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의 메시지에 민감하지 못한 롯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래도 롯은 하나도 심각해지지 않습니다. 소돔성을 빠져나가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이런 롯의 태도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5 절을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또 16 절에서도 “...롯이 지체하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하자면 롯은 동이 틀 때까지 결단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롯을 재촉하는데 롯은 여전히 지체하고 있습니다. 왜 롯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지체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마 롯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희미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할 것인가? 이렇게 살기 좋은데...’ 아마 롯은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지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이것은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큰일이야, 이래서는 안 돼’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킬 힘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잃어버렸고 지옥의 고통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롯의 이런 영적 분위기는 그의 사위나, 아내에게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천사들의 메시지에 대한 롯의 사위들의 반응은 좀 더 심한 편입니다. 롯은 딸들과 정혼한 그의 사위들을 찾아가서 천사들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롯은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위가 될 두 사람은 롯의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14 절)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소돔성과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롯의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의 메시지가 롯의 아내에게는 현실적으로 들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겠으나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한 천사들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농담이 아닙니다. 롯의 사위와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정도로 받아들였다가 소돔성과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이한나 목사

함께 멸망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특별히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대강 받아들이면 큰일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는 죽을 날이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제 인생에 대해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롯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 속에 빠져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 시대의 성도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합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삽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날 교회가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잃어가는 것이 위기 중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디애나 주에 있는 해몬드 제일침례교회(The First Baptist Church of Hammond)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교회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주일아침이면 180대 이상의 버스로 어린이들을 교회로 수송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특별한 것은 설교 강대상 주변에 방탄유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하도 죄에 대해 너무나 강하게 설교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설교를 듣다못해 목사님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총격사건이 그 이후에 몇 번 더 있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교회에서는 방탄유리를 강대상 주변에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문제가 생겨야 우리 생각으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무슨 방탄유리냐 하면서 죄에 대해서 좀 덜 설교하시라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진리에 대한 분명한 말씀으로 인해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롯처럼 영적으로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무기력한 것은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희미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롯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천사를 보낸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시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성을 멸하시기 전에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주어서 미리 중보기도하게 했습니다. 또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아주 특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소돔성을 심판할 하나님의 시간이 임박해지자 천사들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15) 그런데 천사들은 굉장히 다급한데, 롯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주저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급해진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사실 누가 더 서둘러야 합니까? 당연히 롯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더 급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을 기어이 구원해 내고야 마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사실은 소돔성의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금 롯의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이한나 목사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의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은 무기력한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롯을 구원하고자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구원자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까지 기어이 인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혹시 여러분들은 소돔성에 살았던 롯처럼 믿음의 무기력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에 안주하여서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저 좋아서 ‘주님 오시지 않아도 좋아요!, 여기가 좋은데요, 아프지만 않으면 여기도 천국인데요...’ 만약 그렇다면 그 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심판의 메시지가 부담스럽다면 우리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기어이 롯을 소돔성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 사건이 아브라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 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19 장에 나오는 소돔성의 멸망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심판 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롯의 가족을 소돔성에서 끌어냅니다. 아침에 되었을 때 하나님은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돔성에 있는 조카 롯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날이 밝자 일찍 일어나서 소돔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고 성 안에 연기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멀리 서서 소돔성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 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없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없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며 전도해 보셨습니까?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증거와 하나님 사역에 헌신한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